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본회, 사료협회와 공동으로 닭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 개최

- 3월21일부터 4월중순까지 지방 순회 -



(맹원재 박사) (최정옥 박사)

「닭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가 지난 3월 29일 본회회의실에서 양계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맹원재 (건국대) 교수는 배합사료 다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외국 사료업체의 시설규모, 생산과정 등 현황을 소개하고, 그들은 양축가와 사료회사가 흥망을 같이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는 품질개선이 안되면 살 수 없는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외관적 함량이나 색깔에 연연하는 관습적인 사료선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적정한 배합수준에 의해 생산된 양질의 사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료다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보리 사용의 경우 상호보완 작용을 이용한 양질사료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보완책으로서 에너지

수준, 아미노산 함량, 아미노산 이용율을 조절하면 영양면에서나 열량면에서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호성 향상을 위해서는 당밀, 우지, 향료를 첨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현(사료협회) 부장은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이 9.5%에 달하고 있으나 6.5%를 차지하는 보리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사료 가격을 현수준에서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된 세미나에서 최정옥 가축위생연구소(계역과)박사는 「최근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잘 알려진



△ 닭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

질병이다。」라고 전제하고 뉴캐슬병(ND)과 전염성후두기관염(ILT)의 접종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최정욱박사는 양계업자들이 백신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백신은 저항체 형성에 의한 면역효과가 있을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양 및 방역관리라고 말했다. 또 ND 백신 접종시 효과적인 방법은 점안접종이나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언제나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LT와 ND 동시접종문제도 언급, 가능한한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강의가 끝난후 양축가들과의 많은 질문이 오갔다.

한편 3월 30일에는 경기도 수의사회관 3층에서 수원지역 양계인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규(AAAP회장) 박사가 강사로 나서 콜레스테롤과 배합사료 다변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박사는 콜레스테롤이 과다하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말하고, 채식을 많이 하는 한국인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와 사료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가축위생연구소의 후원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순회강습회는 4월 6일 부산에서, (오후 2시, 동래구 온천예식장), 4월 9일 경기도 광주(오후 3시, 분회회의실)에서, 4월 16일 충남 홍성에서 (오후 2시, 원양예식장) 각각 개최된다.

이번 닭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는 닭전염성 후두기관염(ILT) 및 뉴캐슬병(ND)이 일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양축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앞으로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지않을 경우 계속 만연의 우려가 있고 최근 사료곡물다변화에 따라 배합사료 품질및 수급, 가격 전향

에 대한 양축가의 의문이 많아 때를 맞춰 개최된 것이다.

검정소조경 현수 기간연장

- 4월말 까지 계속 접수 -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가 경기도 안성 신축부지 위에 1차공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주변조경사업을 양계 관련업체 현수사업을 통해 월간양계 2월호 P. 99, 3월호 P. 152 참조) 실시하고 있는 본회는 지난 2월 1일 부터 3월말까지 현수금 579좌 (5백79만원상당)와 5~10년생 나무(은행나무, 잣나무) 213주 등이 담지, 오는 4월 13일(금) 본회 직원들이 식수작업을 할 예정이다.

본회는 아직도 현수를 못한 양계인 및 유관업체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로 현수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계속 접수중에 있다.

2월 29일(수) 개최된 본회 2차 이사회에서 양계인, 관련기관, 단체, 업체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회 임원들은 10좌 (100,000원) 이상씩 현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는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완비, 양계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검정사업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직 현수를 못한 양계인 및 유관업체는 4월 30일 까지 본회로 접수하면 된다. 3월말까지의 현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현수자 명단

* 접수순, 3월말 현재

성명	소속	좌수
오봉국	서울대농대	3
강세춘	광일부화장	10
김영욱	류리나	1

●양계협회소식

성명	소속	구좌수
오세정	전국대축산대	2
김대진	동아대농대	1
김순재	전국대축산대	2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1
배선채	충원농장	2
이재근	고려대농대	1
고태영	진양농장	10
등진희	(채란양계인친목회)	43
채란분과위원회		20
송찬원	농수산부축산국	3
이영래	농수산부축산과	2
김영철	평농축기	1
김수동	창동부화장	1
조정래	수원분회	2
이상윤	신기농장	20
장민기	버들농장	5
백명기	해원농장	2
육계분과위원회		20
박석규	동아건축	10
오정기	삼대건축(주)	20
박준영	한협중계장	10
신홍종	고창양계장	10
류종래	유성농장	10
민덕기	덕일농장	10
한명복	교하농장	10
광주분회		3
감별분과위원회		5
유창열	한국사료항미양행	1
김정웅	경성부화장	3
문창식	중앙중금장	1
박응곤	성원부화장	2
이경용	과주군조리면	2
신주영	고골부화장	2
신장범	구구농산부화장	2
신하순	해동부화장	3
충남지부		15
차상진	봉명부화장	10
김진중	봉산농장	3
이중교	봉천부화장	1
김정성	우재화장	2
정환영	재성부화장	1
최종윤	청곡농원	2
최이동	제일부화장	5
	서림부화장	1

성명	소속	구좌수
나기현	연암축산전문대	전나무 10년생 7주
이형성	기룡농원	10
정재덕	신일부화장	2
최규익	익산군망성면장석리	1
양석회	무안군일도읍의산6구	4
김영권	익산군망성면장선리	2
김영만	영암군신북면이천3구	3
조정성	신기농장	1
김정길	수촌사료	3
박이계	신수가족	50
송기홍	내외동물약품	10
장경국	내외물약품	1
정신부	두산곡산	1
김무진	축산시험장	3
서울사료	중앙케미	5
차두홍	한일농원	은행나무5-10년생 200주
서정범	제일화학	10
최종민	상록문화사	6
이원계	계명정판사	12
김관희	광성정판사	12
김운배	태화지업사	15
유성식	서울화학	50
원태원	홍성사료	10
이용주	상양부화장	2
이건일	봉림농장	2
이규문	포천부화장	1
조순회	동순부화장	1
한재권	강남부화장	3
남광풍	풍천농장	2
김문기	동두천하봉압동	2
안경희	경원부화장	2
김백수	새한부화장	1
구본영	안성군공도면마정리	주목5주 (5-8년생)
정성희	재성농장	2
이균식	원정농장	2
남궁선	가축위생연구소	1
이영욱	가축위생연구소	1
이태근	소개울농장	10
윤우구	가축위생연구소	1
윤근익	성남산업	1
한교석	성남부화장	1
	한홍부화장	1
	유신부화장	1

성명	소속	구좌수
최일경	충남부회장	2
이현진	익산부회장	2
김영일	제일부회장	1
이삼열	안심부회장	1
김범한	철성부회장	2
정원준	신라부회장	1
정상태	홍성농원	10
류왕백	영진농장	3
송유돈	영남부회장	2
배성환	청소농장	10

* 1구좌 = 10,000 원

육계생산자대표 긴급간담회 개최



△ 육계업의 안정을 위한 긴급 육계생산자 간담회가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84년 3월 9일과 84년 3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육계생산자 대표 긴급간담회가 되었는데, 1차 긴급회의는 계육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토론에 들어가기전 본협회 황인옥 전무는 닭고기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수입 등 비상조치가 예상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본회의에서는 닭고기 가격상승으로 인한 공급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닭고기 공급이 원활치 못한 주된 원인은 작년

말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사육수수감소와 사료 구입방법 개선(현금구입),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 닭뉴캐슬병(ND) 등의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2월의 초생추 출하증가와 전기사료 생산량의 증가로 4월중순 이후는 예년의 상태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계육가격은 상당히 높은 kg당 1,400원~1,450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량이 적고 실지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초생추가격은 마리당 230원~300원선, 입추상황은 육계가격은 좋으나 사육자들의 신중한 입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자들의 건의사항은 닭고기가격의 연동제 실시, 정육점에서 닭고기판매 실시, 종합 식육판매 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2차 육계회의는 닭고기 수입억제를 위한 계약생산에 대해 생산자들과 협의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정부기관에 협조요청하기로 했으며, 간이계사철거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2차회의에 참석한 생산자들은 간이계사철거의 완화와 초생추 출하증가로 현재의 시세 1,250원(kg당)선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피드빈의 사용관리에 대한 세미나도 -



(김영철 사장)



3월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목) 오후 2시 축산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평농축기의 김영철사장은 「Feed Bin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드빈의 품질에 대해 설명했다. 김사장은 피드빈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 고착현상 방지를 위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teel과 FRP 피드빈의 장단점에 관해 설명하면서 일본, 대만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RP가 가벼운 장점은 있으나, 값이 비싸고 내면이 거칠어 고착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영철사장은 양계산업의 대형화, 자동화 추세에 따라 현대식 급수기와 급이기의 설치가 요청된다고 체인형, 디스크형 등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어 분과위원장 인사에서 고태영위원장은 최근 분과위원들의 참석열이 식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바쁜 가운데에도 좀더 열의를 보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인욱전무는 협회주요업무보고에서 이사회, 광주지역 양계인간담회, 육계가격안정대책회의, 사료가격인상요인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사료

가격 인상요인은 9.5%에 달하는데 그중 보리가 6.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료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의안건으로 난가현실화 문제가 재차 거론되었는데, 가고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상인과의 합의하에 신중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현재 군납가격은 48g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중란하한선인 47g이나 대란기준인 54g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분과위원장에는 현 고태영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유임되었다.

배합사료 가격안정 건의

- 3개 생산자단체 농수산부에 -

본회를 위시한 양돈협회(회장 전돈용), 낙농비육협회(회장 유운수) 등 3개 생산자단체는 최근 배합사료에 국내산 보리 및 옥수수 사용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있을것을 우려, 배합사료가격을 현수준에서 동결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농수산부에 건의했다.

건의서

우리나라 축산진흥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에게 전축산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축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축산진흥시책과 국민소득의 꾸준한 향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은 경영비의 70%를 차지하는 사료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야 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외국의 배합사료원

로 가격 변화에 따라 좌우되어 왔습니다. 지난 83년도 1년 동안 우리 축산업계는 20% 이상의 배합사료가격이 상승된 반면 생산물 가격은 오히려 전년도 수준을 밑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도 계속된 불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는 4월 1일 부터는 또다시 약 9.5%의 사료가격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니 (한국사료협회통보) 우리 양축가로서는 앞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중 약 7%에 해당하는 국내산 보리 및 옥수수 사용에 대하여는 양축가들도 국내부존자원활용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고자 하오나 상기와 같은 어려운 현실점에서 양축가들이 부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축산업계에 83년도 20% 이상의 배합사료가격인상에 이어 다시 9.5% 가량을 인상할 경우 양축가의 충격은 너무도 클 것이며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산 원료사용으로 인한 추가부담액을 축산진흥기금 또는 기타재원으로 보전하고,
2. 84년 1년간은 도입사료용 원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세하여 금년도 중에는 배합사료 가격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여 주실 것.

1984. 3.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이상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전동용
 사단법인 한국낙농비육협회장 유윤수

간이계사 철거 유보건의 파이프하우스계사 양성화 재건의 — 닭고기수급에 지장초래 시정 —

본회는 경기도의 간이계사(파이프하우스) 철거 조치에 따라 영세한 양계인의 생계위협은 물론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경기도 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대부분의 농가가 간이계사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육계 80%, 산란계 30% 추정), 경기도 일원에 전국 양계숫자의 45%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간이계사를 사전대책없이 철거할 경우 양계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양계인의 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싼 값으로 양계산물을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 건의한 것이다.

이번 건의에서는 ▲경기도지역의 각종 규제에 의해 축사의 신·개축이 어려워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간이계사시설을 정식축사 또는 구축물로 인정해 양성화해 줄 것 ▲양성화 조치가 불가피한 지역은 수급상 철거를 유보해 주고 이전시기, 대책 등을 사전에 농가와 협의해 무리없이 철거(이전)해 줄 것 ▲임야나 생산성이 낮은 척박한 상대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간편한 수속으로 계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본회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당국에 간이계사 철거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 구축물로 인정해 줄 것과 계사신축을 간편한 수속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었다.